

이오테크닉스 등 협회 회원사 7개사 수출탑 수상

제47회 무역의 날 행사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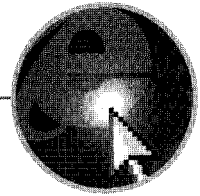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 지난 11월 30일에 있었던 무역의 날 행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남유럽 재정위기, 환율문제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수출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세계 수출순위 7위를 달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시장 개척과 무역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872명에 대한 훈포장 및 정부 표창 수여식이 열렸다. 삼성중공업(주)이 100억불 탑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총 1536개 업체가 100만 불에서 100억불 탑에 이르는 수출탑을 수상했다. 협회 회원사에서는 이오테크닉스, 세코닉스, 코렌, 해성옵틱스, 유니백, 한국토키나, 윈어스테크놀로지가 수출탑을 수상했다.

취재 | 박지연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가 후원하는 제 47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지난 11월 30일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무역업체 기업인과 근로자, 정부·수출유관기관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는 가운데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해 '수출 세계 7위' 달성을 기념하고, 무역인들을 격려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어려운 수출환경 속에서도 불굴의 개척정신과 창의적인 제품·기술 개발 노력 등으로 세계시장 개척과 무역증진에 앞장선 유공자 872명이 훈·포장 및 정부 표창을 받았고, 총 1536개 업체가 100만불에서 100억불 탑에 이르는 수출탑을 수상했다.

우리수출은 지난해 1~10월 누적 3819억 달러로 전년동기비 30.1%가 증가했으며, 연말까지는 전년동기비 28.2% 증가한 466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출을 초과한 사상 최고의 수출액이다.



무역수지도 1~10월 누적 355억 달러에 달해 연말까지는 42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큰 폭의 수출증가는 선진국 시장의 IT, 전자제품, 자동차 수요 회복 등으로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신흥개도국에 대한 우리의 반도체, LCD, 전자제품 및 자동차 부품 수출이 호조를 보인데 기인한 것이다.

이날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몇 년째 30%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40%대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내수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사공일 무역협회 회장은 무역의 날에 앞서 개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선진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여줘 G20 정상회의와 비즈니스 서밋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우리기업의 브랜드가치 상승 등 ‘코리아 프리미엄’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리아 프리미엄 효과가 실질적인 수출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혁신적인 품질 개선과 디자인 향상, R&D 확대 및 해외마케팅 강화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공 회장은 2011년도 우리의 무역환경은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환율하락 기조 등에도 불구하고 주력상품의 경쟁력 향상, 신흥시장의 성장세 지속 등에 힘입어 수출 5160억 달러, 수입 4850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무역 1조 달러’ 시대 진입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수출·무역수지 사상최대, 2011년 무역 1조달러 시대 도래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과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식경제부는 2011년 새해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서며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무역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식경제부의 ‘2010년 수출입 동향 및 2011년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은 4674억 400만 달러, 수입은 4256억 8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무역흑자는 417억 2300만 달러였다. 수출은 사상최고였던 2008년의 4220억 달러를 넘어섰고, 흑자규모도 2009년 404억 달러를 넘어서며 동반 최고 수준이다.

수출은 세계 7위, 무역규모는 세계 9위에 올랐다.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들이 고르게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수출은 2009년보다 63.3%나 늘어난 506억 8000만 달러로 수출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고, 자동차부품(62.6%), 자동차(39.3%), 석유제품(34.9%), 석유화학(30.0%), 액정디바이스(27.8%) 등도 높은 수출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스마트폰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수출품목인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11.6%나 감소했다. 그나마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 출시 이후 하반기 들어서는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되찾아가고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대일 무역적자 확대와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는 지난해 12월 20일까지 모두 348억 8000만 달러로, 역대 최



▶ 지난 11월 30일에 있었던 제 4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고였던 2008년(327억 달러)를 넘어섰다.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5%로, 미국과 일본·EU에 대한 수출을 모두 합친 수준에 맞먹는다.

지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서며, 명실상부한 '무역강국'으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넘어선 국가는 미국과 독일·중국·일본·프랑스·네덜란드·이탈리아·영국 등 8개국에 불과한 상황.

정부는 2011년 수출이 9.8% 증가한 5130억 달러, 수입은 14.6% 상승한 48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흑자는 250억 달러 안팎이다. 전체적으로는 수출 규모는 늘지만 무역수지는 다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872명 유공자 포상, 1536개 사 수출의 탑 수상

이번 47회 무역의 날에서는 어려운 수출환경 속에서도 불굴의 개척정신과 창의적인 제품·기술 개발 노력 등으로 세계시장 개척과 무역증진에 앞장선 유공자 872명이 훈·포장 및 정부 표창을 받았다.

삼성중공업이 100억불 탑, LG화학과 GM대우가 80억불 탑, 현대모비스가 60억불 탑을 수상하는 등 총 1536개 업체가 100만불에서 100억불 탑에 이르는 수출탑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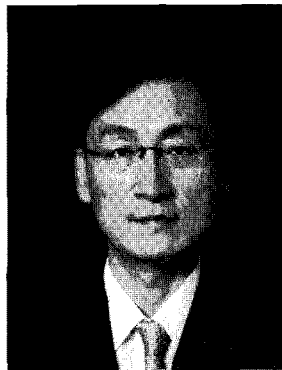
특히 금번부터는 상품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외 진출 및 수출이 부진한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위해 서비스부문의 훈장 및 포상을 대폭 확대해 눈길을 끌었다.

메디파트너(석탑산업훈장), 케이웨어스(석탑산업훈장), 대한통운(주)(산업포장),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3천만불탑) 등이 의료컨설팅, 전시·회의, 물류·운송, 방송콘텐츠, 게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서비스부문에서 훈장 및 포상, 수출탑을 수상했다.

협회 회원사에서는 이오테크닉스(7천만불탑), 세코닉스(5천만불탑), 코렌(3천만불탑), 해성옵틱스(1천

만불탑), 유니백(1천만불탑), 한국토키나(3백만불탑), 윈어스테크놀로지(1백만불탑) 등이 수상했다. 다음은 회원사 수상업체에 대한 간략한 소개이다.

■ 7천만불탑-(주)이오테크닉스



▶ 이오테크닉스의 성규동 사장



▶ 회사 연구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한 성규동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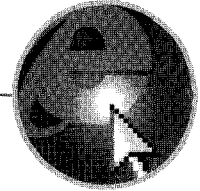
반도체용 레이저 마킹기 제조업체 이오테크닉스(대표·성규동)가 지난 2009년 5천만불탑 수상에 이어 1년만에 다시 7천만불탑을 수상했다.

이오테크닉스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반도체 마킹 분야를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늘었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전년보다 26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장비들은 Marking, PCB Drilling, Glass Cutting, Welding, Cleaning, Trimming, Repair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각종 반도체, Solar cell, LCD, PDP, PCB, 광통신 등 첨단 디지털기와 기타 초미세 가공의 생산공정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세계를 석권한 Laser Marker에 이어 Solar cell scribe, Wafer level chip scale Marker, Glass Marker, Trimmer, Deflasher, Laser PCB Via Hole Driller 등의 신개발품을 통한 반도체, Solar cell, PCB, LCD 분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이오테크닉스의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다,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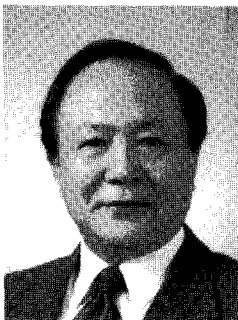


PC 등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만큼 웨이퍼 마커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제품보다 생산성이 2배 증가하는 ‘멀티빔 레이저마커’와 반도체용 식각 장비 ‘그루빙 장비’, 태양전지와 LED 관련 장비 등 신규 제품의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성장 속도는 가파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이오테크닉스에서 생산한 제품은 반도체와 LCD, PDP, PCB 등 초미세 가공의 생산 공정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용 레이저 마커 시장에서 95%, 세계 시장에서는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 5천만불탑-(주)세코닉스



▶ 세코닉스의 박원희 회장

광전자 전문기업인 (주)세코닉스(대표·박원희)는 지난 1998년 백만불 수출탑 수상에 이어 2001년 천만불, 이번에 5천만불을 달성하는 급성장을 보였다.

1988년 12월 설립된 이 회사는 CD 픽업용 렌즈 생산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 VGA급

카메라폰용 렌즈, 프로젝션 TV용 광학계의 국산화 성공, 차량용 후방 카메라 개발, LED용 광학계 개발(가로등, 차량용 헤드램프, 일반조명, 프로젝터), 스마트프로젝트 자동차용 LED헤드램프 개발, 세계최소형 휴대폰 내장 피코프로젝트 개발 등 광섬유 및 광학렌즈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섰다. 일례로 프로젝션 TV용 렌즈는 전세계를 통틀어 미국과 일본이 독점생산하고 있던 제품으로 세코닉스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프로젝션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개과를 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매출액의 15%를 연구 개발비로 출연하면서 얻은 다양한 핵심 기술의 보유와 치밀한 경영관리 시스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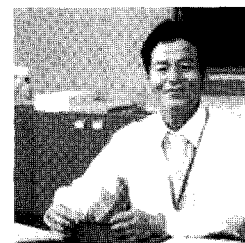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에 이명박 대통령이 회사를 전격 방문해 뉴스메이커가 됐던 세코닉스는 이러한 탄탄한 기술력과 전문 경영 능력을 앞세워 내수에 이어 휴대폰 카메라 렌즈의 세계 시장에서 12%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수출 호조세가 뚜렷하다.

이번 5천만불 수출탑 수상에 대하여 박원희 회장은 “연구소 직원과 생산직 직원, 투자사 등 많은 분들의 노력과 땀의 결실이다. 회사를 믿고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임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모든 공을 직원 가족들에게 돌렸다. 그는 또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시대를 준비해 왔다”며 “연구개발 및 양산설비구축, 핵심 기술의 보유, 마케팅 전략 등 세계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더 멀리 보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 세코닉스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는 이명박 대통령

■ 3천만불탑-(주)코렌



▶ 코렌의 이종진 사장

비구면 디지털 광학부품 전문기업인 코렌(대표·이종진)이 3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코렌은 당시 휴대폰과 관련한 광학 및 영상소자와 관련하여 불

모지와 다름없었던 국내 산업 환경하에서 영상정보화 시대를 열어갈 휴대폰 카메라 렌즈의 중요성과 부품시장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개발에 집중했다. 이를 통해 2003년 국내 최초로 IMT-2000 카메라 폰 모듈용 초점고정 일체형 렌즈 개발 성공에 이어, 2007년에는 비구면 플라스

틱 렌즈만으로 카메라폰용 3백만 화소 렌즈 제품을 국내 최초로 양산하는데 성공했다.

코렌은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시장에서 설계력, 양산기술력을 모두 겸비한 업계 선도 기업으로 현재는 세계적인 핸드폰 제조 메이커인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주요 카메라폰 렌즈 전문 공급업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코렌의 이종진 사장은 “회사 설립 순간부터 수많은 역경과 위기가 있었지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이 이어졌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모두의 도전과 노력에 대하여 금번 제47회 무역의 날 3천만불 수출의 탑이라는 큰 상으로 보답하여 주신 것에 전 임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광학부품 전문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렌은 카메라폰용 렌즈뿐만아니라 지문인식기, IPTV, 차량용 전후방 카메라, 의료용 캡슐 내시경 등 다양한 응용광학렌즈 시장 진출을 통한 세계적인 광학 부품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Road-Map을 가지고 2011년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문인식기, IPTV, 차량용 전후방 카메라, 의료용 캡슐 내시경 렌즈 생산에 필요한 설계 및 양산 기술력은 이미 확보했으며, 설계 기술에 대한 특허도 출원 및 등록도 완료된 상태다. 이러한 응용광학렌즈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진출과 기존 카메라폰용 렌즈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입지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광학 부품 전문 제조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이다.

■ 1천만불탑-해성옵틱스(주)



▶해성옵틱스 이을성 사장

광전자 부품업체인 해성옵틱스(대표·이을성)가 금번 무역의 날 1천만불탑을 수상했다.

이 회사는 1988년 2월 해성산업으로 시작하여 광학렌즈 및 Mobile Lens Assy 사

업을 전개해왔으며, 2002년 4월 지금의 해성옵틱스(주)로 법인전환했다. 창업 이후 지금까지 약21년간 광학렌즈 및 Mobile Lens Assy 한 분야에 매진해 온 결과 금번 무역의 날 수출의탑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현재 이 회사의 자본금은 27억8천만원으로 2009년 매출액은 173억이며 이중 수출매출이 110억으로 약 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도 추정매출액은 225억이며 수출매출은 180억으로 약 80%의 매출비중으로 수출의탑 수상실적에 부응하는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현재 해성옵틱스는 창업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로 주력 제품인 Mobile Lens분야에서 200만 화소, 300만 화소, 500만 화소, 800만 화소급의 Mobile Lens를 개발완료하여 주력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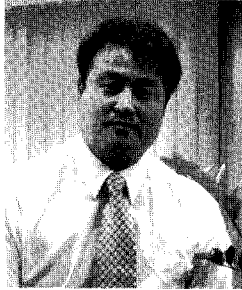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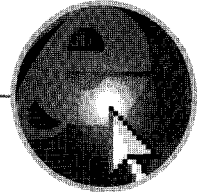
모바일 카메라 모듈의 제조기술에 관련하여 특허등록 2건, 출원 1건의 지적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과제 4건을 성공했고 현재 2건의 과제도 진행중이다.

많은 부품업체 중에서도 해성옵틱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국내최초로 Lens Assy 조립자동화에 성공하여 생산성의 향상 및 Mobile Lens 산업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Mobile Lens 해상력 검사의 완전자동화에도 성공하여 제품원가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을성 사장은 “현재 스마트폰의 상승세에 힘입어 동사의 매출도 급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학렌즈분야에서 ‘전세계 NO1’이 되기 위하여 전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1백만불탑-(주)원어스테크놀로지

광학전문 의료기기 제조회사인 원어스테크놀로지(대표·장령기)는 지난 1998년 설립이후 구강카메라, 귀내시경 카메라, 렌즈검사 현미경 등의 고품질의 제품만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또한 ISO13485, KGMP 등의 품질인증을 바탕으로 품질 향상을 통



▶ 윈어스테크놀로지의 장령기 사장

한 고객만족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02년부터 수출을 시작한 이 회사는 현재 미국, EU, 일본, 호주 등의 선진국에 수출하며 2009년에는 200만 불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특히 미국등의 선진국에서는 까다로운 정도로 정확한 영

상을 요구하는데 이 회사의 제품이 이에 부합되어 호평을 받고 있다. 2009년부터 미국의 KaVo &

Gendex와 DEXIS에 OEM 공급하며 미국 대형 치과유통업체인 Henry Schein에서도 동사 제품을 미국전역에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연간 5천대 정도 수출하고 있다.

장령기 사장은 “미국 금융위기로 국제 경제가 많이 위축되었으나 윈어스테크놀로지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회사의 영업방침으로 정하고 보다 높은 품질의 제품만을 생산하고 선진국으로 시장을 집중하여 영업을 추진한 결과 금번 수출탑을 수상하게 되었다”며 “지속적인 제품개발과 시장진출을 통해 관련 시장에서 입지를 굳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입체 영상분야 사업 진출 - 2009 한국전자산업대전 출품 : Full HD급 입체 카메라 및 입체 프로젝터용 광엔진 -	
<p>주)프로옵틱스, www.prooptics.co.kr, 031-635-9732, prooptics@prooptics.co.kr</p> <p>연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년 : 부품소재 전문기업 - 05년 : 부실연구소 인정, 벤처기업인정서 취득 - 06년 : INNO-BIZ 인정서 취득 - 07년 : NEP 신제품인증서 취득 - 08년 : 법인전환 <p>사업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학설계 제작 - 무편심 조립 기술을 이용한 초정밀 광축 조정 - Line CCD용 AOI 렌즈(고정초점, 줌 렌즈) - Wafer 검사용 광학계 - PCB, LCD 노광 렌즈 - 입체 카메라, 입체 프로젝터, 입체 현미경, 입체 내시경 - 지문인식 렌즈 - 내방사선 감시 렌즈 	<p>특허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6. 10. [특허등록] Line CCD를 이용하는 검사용 광학계용 조명장치 2007. 9. [특허등록] 웨이퍼 검사용 광학계 2007. 12. [특허등록] 무손실 광로 결합장치를 이용한 입체영상 촬영용 스테레오 줌 렌즈계 2008. 3. [특허등록] 입체영상 촬영 렌즈계 2008. 5. [특허출원] 마스크 리스노광장치용 마이크로 프리즘 어레이 2008. 8. [특허출원] 콤팩트한 구조를 갖는 입체영상 투사 광학계 2008. 9. [해외특허출원] 3-DIMENSIONAL PHOTOGRAPHIC LENS SYSTEM 외국 국내진입(미국, 일본, 중국) 2008. 12. [특허출원] 확산광 차단기능을 갖는 노광장치용 마이크로 어레이 2009. 5. [해외특허출원] 마스크 리스 노광장치용 광학부품 2009. 6. [특허출원] 유리 기판의 불균일도 측정 장치 2009. 8. [특허출원] 콤팩트한 구조를 갖는 입체 투사 광학엔진 2009. 9. [특허등록] 무편심 렌즈부품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렌즈부품 2009. 9. [특허출원] 입체 내시경 광학계 2009. 10. [특허출원] 집광향상 기능을 갖는 LED 조명광학계 2009. 11. [특허출원] 입체영상 촬영렌즈계
<p>고해상력시대에 아직도 범용렌즈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Pro Optics의 맞춤형렌즈는 귀사의 장비 성능을 한층 높여줄 것입니다.</p>	